

The Praxis of Social Reformation of '*Ki*' in the Context of Korean History and the Minjoong Theology

Eunkyu Kim *

Sungkonghoe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late to the Minjoong theology by looking back from the Shilla dynasty period to the realistic school which *Ki* thinkers had the basic ideas of *Ki*'s movement of matter in the universe and nature of the *Ki*, and seeing that they had survived as social transformers speaking for the Minjoong.

CONTENTS In Korean history, *Ki* thinkers have suffered the hardship of being excluded and exiled from participating in the reality of oppressing and exploiting farmers and slaves by *Ki*'s corrupt ruling powers. Th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realistic scholars asserted the reform of the civil rights throughout the economy, national defense, education, science, land, slavery on the base of *Ki*, and became the center of Korean history.

RESULTS This study examined that Minjoong theology practiced human rights and social reform movements for the Minjoong including labor workers and farmers against dictatorships. I think it is important to have a conversation with *Ki*'s reform idea. I expect that Minjoong theologians take on the extension of dialogue.

KEY WORDS *Ki*, Minjoong theology, Neo-Confucianism, social reform, Practical Learning, the doctrines of Wang Yang-ming, The Justice of th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konghoe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20.

* **Corresponding to** Eunkyu Kim (Professor, Department of Humanities, Sungkonghoe University)
E-mail : micahkim@skh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한국 '기'(氣) 사상가들의 사회변혁 참여와 민중신학

김은규

성공회대학교 인문자율융합학부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은 민중신학의 연구는 대부분 그 뿌리를 동학혁명까지 소급하여 사회개혁과 연결 지었으나, 본 연구는 고대 신라시대까지 기의 역사를 소급하여 한국사상사에서 '기'(氣) 사상의 뿌리와 줄기를 세우고 그 접촉점을 찾으려는 연구이다.

연구 내용 한국사상사에서 '기'(氣) 사상은 자연과 우주 변화의 물질적 기초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회변혁의 기제로 천 오백 여년 넘게 생존해왔음을 살펴보면, 민중신학의 뿌리와 줄기로 연결 짓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사상사에서 기 사상가들은 자연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리의 부패한 지배권력들에 의해 농민, 노비 민중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현실을 대변하고 참여하다 배제되고 유배되는 고초를 겪어 왔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기 사상을 바탕으로 국방, 교육, 과학, 토지, 노예, 과거제도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민본, 민권 개혁을 주장하여 한국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민중신학이 독재정권에 맞서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을 위해 인권운동과 사회개혁 운동에 참여·실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기의 개혁사상과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기 사상가, 실학자들은 지(학문)와 행(실천)을 통해 리에 의해 지배이념으로 녹아든 세계관, 도덕 가치관의 지배이념을 타파하고, 불합리한 모순들을 타파하고 실용적인 사회로 개혁하려 했음을 밝혔다. 바로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정의와 인권사상과 민중들과 함께 한 예수를 밝혀낸 민중신학자들의 사상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대화의 확장성을 가질 것이다.

주제어 기(氣), 민중신학, 성리학, 사회개혁, 실학, 양명학, 구약 예언자의 정의사상

I. 서 론

이 연구는 민중신학의 뿌리를 고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기’(氣) 사상의 사회변혁 전통의 맥락을 세우고 그 접촉점을 찾는 연구이다. 한국사상사에서 ‘기’(氣) 사상은 자연과 우주 변화의 물질적 기초를 표현하는 개념이며, 사회의 변혁사상으로 천오백 여년 넘게 작동해왔음을 볼 때, 한국사상사에서 민중신학의 근거와 맥락을 연결 짓고자 하는 시도이다. 한국사상사는 고대 부족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역사와 정신문명사에서 신, 인간, 자연, 우주, 과학 등에서 기원과 본질들에 대한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복음 전래 이전 시기라는 이유로 기독교 신학과는 선을 긋고 연결짓는 것에 주저해 왔다. 하지만 함석헌, 류영모, 윤성범, 유동식, 김흡영, 김상일, 이정배, 이은선, 허호익 등 일부 신학자들은 한국의 전통사상들과 기독교를 연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한국의 ‘기’(氣) 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민중신학과 연결짓고자 한다. 왜 신적 개념에 가까운 리가 아니고 자연과 물질적 기반의 기인가? 여기서 리와 기의 관계를 보면, 서양철학과 기독교에서도, 신 개념은 관념의 세계이고, 기 사상은 자연, 우주, 물질의 세계를 주로 다룬다. 플라톤의 관념적 ‘이데아’(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끌고 간다는 주장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 사물에 기초한 ‘실재론’(기) 사이에서 오랜 대립이 중세까지 이어졌음을 본다.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리)이 우주(기)와 삼라만상(기), 인간까지 창조한 것은 확고부동한 진리이다. 조선사상사에서 계속되는 리와 기의 선후에 대한 우위점유도 기독교로 보면 창조신학이다. 리(신)가 우주만물을 창조했나? 기(물질)가 창조했나?를 따지는 논쟁이 수 백년간 지속되었다. 주리론이 권력의 지배이념으로 채택되어 리가 우주만물의 기원이자 창조했다는 입장이었다면(理先氣後), 주기론자들은 기가 시원이며, 우주, 자연, 삼라만상의 세계를 만들고 운행한다는 입장(氣先理後)이다. 주기론자는 우주와 자연의 변화발전하는 이치에 근거하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경향이었기에, 주리론자는 주기론자를 권력에서 배제시키고 유배 보냈다. 연구자가 민중신학과 기 사상을 연결짓고자 하는 주된 이유이다. 민중신학의 핵심 사상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사회정의 사상과 예수의 고통과 부활을 통한 해방사건이었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시, 공간을 초월한 성령이 삼국, 고려, 조선시대에 농민운동, 민중운동의 역사에 참여했다고 본다. 삼국시대부터 불교와 유교는 왕과 통치계급의 질서를 옹호하는 군신의 충효의 가부장적 지배이념이 되었고,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 전체 기간에 리 우선의 충효의 지배이념을 굳건히 지키며 권력을 유지했다. 반면 기 사상가들은 지배층으로부터 착취당하고 도탄에 빠진 농민(민중)들의 현실들에 관심갖고 사회개혁에 나섰기 때문에 배제되었다.

사실 리와 기의 선후 관계는 서양 기독교 역사에서도, 한국사상사에서도 항상 권력이 있었다(Kim, 2020: 183-211). 주리론자는 리 우선으로 권력의 주류로 지배이념을 이어갔고, 기 주장자들은 기 우선의 명분과 사회개혁의 의지를 보였기에 내침을 당했다. 연구자의 주관심은 리와

기의 선후관계가 결코 아니며, 기 사상이 펼쳤던 사회개혁사상이다. 연구자는 이들의 사상과 대화하며, 민중신학에서 보는 기 사상의 개혁사상의 공통분모를 찾고자 한다. 이 논문은 고대부터 한국사상사에서 기사상의 맥락을 잡고, 시대별 기사상자들의 기사상과 사회개혁 사상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민중신학과 접촉점을 찾고자 한다.

II. 한국사상사에 대한 민중신학 방법론과 해석학

민중신학에서 한국사상사와 연결짓는 시도는 우선 서남동, 김용복, 김경재, 권진관 등이 동학 사상과 관련지었다. 한국 민중신학의 2, 3세대 학자인 권진관, 강원돈, 김희현, 김진호, 정병일, 최형묵, 박재형 등과 같은 신학자들은 서양사상과 대화하며 확장성을 넓혀왔다.

1970~80년대 안병무의 신학은 볼트만(R. Bultmann, 1884-1976)의 실존주의적 해석학적 견해로 출발했고, 편집사와 사회사적 해석을 통해 민중의 현장과 삶의 자리를 발견함으로써 서구 신학을 극복한다. 서구의 삶의 자리가 성서 배경에 제한을 두었다면, 안병무는 민중신학 이야기에서 민중신학은 오늘의 삶의 자리와 성서의 삶의 자리를 순환적으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적용시켰다. 서남동은 민중신학의 탐구의 ‘두 이야기의 합류’ 속에,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식민사관이 아닌, 민중의 전통을 이기백의 사관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서남동은 한국사의 전과정을 지배세력의 사회적 기반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원시공동체 사회부터 4.19혁명까지 민중운동사로 정리했다. 여기서 그는 간결하게 한국철학사, 한국종교사, 한국민중운동사와 기독교적 해석을 연결지으려 했다. 하지만 이후 연구에는 나오지 않는다. 문동환은 아리랑 고개의 교육에서 조선시대 민중이 ‘민’(民)과 ‘중’(衆)을 합한 개념으로, 조선시대 평민들이 양반계급 즉 지배계급에 의해서 억압받았을 때 사용된 것으로 양반계급에서 제외된 사람은 모두 민중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세 분들에게서 고대로부터 한국적 현실과 사상들과는 본격 연결고리를 갖지 못한 한계를 본다.

이에 연구자는 안병무와 서남동, 문동환의 한국사상사에 대한 민중신학적 해석방법론에 근거하여, 삼국시대와 고려, 특히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에서 기 사상가들이 겪었던 당시 한국 민중의 삶의 자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 사상가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주류계급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민중을 대변하는 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한 메시지와 동일함을 보이고 있다(Kim, 1978: 2021).

III. 한국철학사에서 기 사상의 역사적 맥락

한국 기철학의 기원은 기원전 10~8세기 경에 고조선, 부여, 진국 등은 부락연맹체 성격의 노예제 사회이었다(Yoon, 1989: 111-115). 통치계급은 토지소유를 기반으로 평민과 노예를 지배, 착취하며 농업, 목축업, 수공업 등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해 나갔다. 기원전 4세기에는 철제 공구로 사회 제반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주며 계절, 가뭄, 홍수 등의 자연현상에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고대인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생존을 배웠다(Joo, Lee, & Joo, 1993: 32-33). 1세기에 중국에서 유학이 들어와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리’(理)의 신적 개념과, 천지만물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기’의 개념이 생겼다. 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이 물, 불, 나무, 쇠, 흙이라는 물질이 ‘기’라했고, 태양, 별, 구름, 안개 등도 기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가 커지고, 전쟁, 무역, 경제 등이 활발해지면서 봉건제는 권력을 고착시켰고, 독점과 부패를 만들었다.

1. 신라 최치원과 고려 이규보의 기 사상 전개

삼국시대에 기 사상을 최초로 전개한 최치원(857~908)은, 국가의 관직을 역임하는 동안, 진성여왕의 실정으로 사회가 부패하여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그는 개혁의 의지로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894년)를 올려 바로잡으려 했지만(Jeon, 2005: 129-142), 실현되지 못하자, 관직을 버리고 해인사에서 만년을 보냈다. 그는 유불도 삼교융합의 정신을 가지면서, 우주만물의 해, 달, 별, 땅 등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극’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여, 기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는 만물의 근원인 태극은 분화되기 전 혼돈한 상태에 있는 ‘원기’(元氣)로 보았고, ‘쟁’(爭)의 논리보다는, ‘화’(和)에 기반을 두고 포섭과 초월의 ‘원융회통’(圓融回通) 사상을 펼쳤다. 이러한 사상에 근거해 그는 봉건 통치계급과 당대 사회의 부패한 현실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Jeon, 2005: 142-144). 그리고 권력층과 귀족계층의 허위와 탐욕과 부패의 행위들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가난한 생활에 동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려 시대의 이규보(1169-1241)가 살았던 시대는 1170년 정중부(鄭仲夫) 등이 무신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던 때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하던 불안정한 시기에, 지방 말단에서 국왕의 문서를 관리하는 한림원의 관리로 임명되었다(Park, 1996: 33-50). 그는 천문, 의학, 생물학 등 당시 자연과학의 수준에서 중국의 ‘원기’(元氣)가 천지만물을 낳고 구성하는 원시적인 물질의 기초, 음양 두 기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물질적 실체라고 보았다(Joo, Lee, & Joo, 1993: 109). 그는 ‘천신’이나 ‘부처’가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한다는 관념론을 반대하고, 천지만물은 사물의 발생, 발전, 소멸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규보는 신흥 중소지주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권의 권력층의 가혹한 정치와 부패한 통치제도를 폭로하면서 진보적인 사회, 정치적인

견해를 보였다(Lim, 2003: 162-166). 그는 개혁하고 인정(仁政)을 펴며, 탐관오리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 이상적이고 태평스런 봉건사회를 지향했다. 그는 빈부차별에 대해서, “남쪽의 집들은 부유해 노래와 춤으로 떠들썩하지만, 동쪽의 집들의 자식들은 가난해 곡소리로 시끄럽다. 찬 부엌에 칠일 동안이나 연기가 피어나지 않을 때, 남쪽 집들을 바라보며 대나무 찢어지는 듯한 곡소리가 매우 슬프구나”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표현했다(Joo, Lee, & Joo, 1993: 117). 또한 그는 탐관오리들을 향해, “흉년이 들어 백성이 여럿 죽었는데,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뼈와 가죽 뿐이요. 네게 묻노니 몇 개의 입으로 저 창생의 살을 뜯어 처먹으려 하는가?”라고 읊으며 부패한 현실을 비판했다(Joo, Lee, & Joo, 1993: 118). 이 규보는 원기사상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자연과학적 사고를 하며, 불의한 사회개혁에 앞장섰고, 조선시대의 16세기 기 사상가인 서경덕이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발판이 되었다.

2. 조선 초기 김시습과 서경덕의 기 사상의 전개

15세기 조선 초기 사회는 정국이 매우 불안했다(Kim, 1998: 74-108).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들은 어느새 훈구파가 되어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부패했다(Lee, 2019: 232-234). 이에 지방 사림파들이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실패를 하며 사회들이 일어나 유배와 죽임을 당하였다. 탐관오리와 지주들의 착취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등 정세가 불안정했다. 조선은 삼국과 고려 시대의 불교가 미신과 부패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으로 규정하고, 건국 후 유교 정주학을 공식 채택했다. 주류정치는 리를 내세워 충효를 지배이념으로 왕조기간 내내 통치하면서 보수화했고, 개혁적 성향의 기 사상가들을 중앙정계에서 배제와 축출로 일관했다.

김시습(1435~1493)은 조선 정주학의 ‘리가 기보다 앞선다’는 논리에 반대하고, 우주는 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일원론을 주장했다(Choi 1996, 237-261). 그는 기는 불멸하고, 기의 운동은 영원하며,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며, 순환하는 운동으로 천지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모두 기로 보았다(Joo, Lee, & Joo, 1993: 189). 이같은 견해는 고려시대까지 기를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는 했지만, 김시습이 처음으로 ‘기’가 천체와 자연의 모든 현상과 사물이 기의 작용으로 발생하고, 사물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실체라고 주장했다(Joo, Lee, & Joo, 1993: 190). 이러한 사상을 토대로 김시습은 불교의 미신성을 폭로하고 비판했고, 천당과 지옥, 인과응보를 부정했다. 그는 세계가 음양 두 기로 구성된 물질적 세계로 생각하여, 천지 밖에 따로 천당, 지옥이 있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사물의 객관 법칙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김시습은 떠돌면서 만난, 농민들의 참담한 생활을 목격하고, 집권자들과 탐관오리들의 죄악행위를 비판하며, 권력자들의 학정을 폭로했다. 그는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개혁방안으로 ‘인정’(仁政)을 제시했는데, 따뜻이 덥혀 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농업과 양잠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세금을 덜어주고, 요역을 가볍게 하여 농사지를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

는 것이라고 했다.

화담(花潭) 서경덕(1489~1546)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기 사상가이다. 15세기 말엽부터 16세기 중엽은 대관료와 지주계급의 토지점병과 사치가 극에 달하던 사회 정치 풍토 아래서 지방에 은거하며 저술과 학문의 세계에 전념했다. 서경덕의 철학은 ‘기’이다. 그는 기가 만물의 근원이며 천지 간의 만물은 모두 기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물질적 실체라고 생각했다(Jeong, 1993: 184-191). 그는 김시습과 같이 기를 시원(始源)으로 표현했고, 기가 우주공간에 충만해 있어서, 큰 것은 해, 달, 별, 땅이 되며, 작은 것은 풀, 나무 등 만물이 된다고 보았다. 서경덕은 정통적인 리학(理學)에서 리가 기보다 앞서고, 기보다 위에 있다는 관념론을 반대했다(Kim, 1970: 53-93; 1972: 147-148). 서경덕은 사회, 정치관에서 집권자들이 사욕을 자제하고,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요역을 경감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대지주 계층의 토지점병을 막고,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진보적인 주장을 폈다.

3. 조선 중기 이황의 리와 이율곡의 기사상

조선의 유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이는 퇴계 이황(1501-1570)이다. 이황은 순탄한 고위 관직생활을 이어갔으며, 리의 지배이론을 만드는데 큰 공로자다(Lee, 2008: 186-194, 204-206). 그의 철학사상은 중국 정주학의 기본개념을 최고의 범주로 삼아, ‘리’는 본체이고 중심이며, 천지만물의 근원이고, 창조하며, 만물을 주재하기도 한다는 생각으로 ‘리’를 최고의 절대관념으로 보았다. 리기의 관계에서도 주희의 리일원론 관점으로 리는 일차적이지만, 기는 이차적이라는 “리선기후”(理先氣後) 주장이다(Sung, 1995: 144-160). 오로지 리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유일하며 영원한 존재로 고정불변의 존재인 것이다. 반면 기는 선과 악이 어울려 존재하는 가변적이고 타락할 존재로 보았다. 그는 리와 기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리귀기천설’(理貴氣賤設)을 주장했다. 이는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서 사단(리)은 순수한 것으로 상위이고, 칠정(기)은 종속적 위치로 놓았다. 이황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은 물론 군신과 부자등의 관계와 같은 봉건 윤리규범까지 절대적이고 만고불변한 ‘천리’로 만들어 버렸다. 이황의 극단적인 사상은 정주학만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며 나머지 일체의 학설들은 이단으로 몰아 배척하였다. 초기 기독교 때,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를 절대불변으로 만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모두 이단으로 몰고 배척한 것과 같다(Kim, 2020: 200-204). 이황의 리와 기의 주종관계는 인간사회에 계급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에 적용하고, 특히 정치에서는 봉건적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조선사회의 지배계층에게 신뢰를 얻었다.

율곡 이이(1536~1584)는 이황의 ‘리선기후론’(理先氣後論)이나, 서경덕의 ‘기일원론’에 반대하고, 리와 기의 조화를 시도하여, 리와 기가 동시에 세계의 본질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리와 기가 서로 독립하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그리하여 똑같이 세계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

다. 리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이다. 리와 기가 서로 신묘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리는 리요, 기는 기이다.”(Joo, Lee & Joo, 1993: 255). 그는 ‘리선기후론’과 ‘기일원론’의 양쪽의 절충을 꾀하여, ‘리기이원론’을 주장했다. 이이는 리와 기를 통합시키면서, 실천의 변증법으로 승화한다. 그는 실천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보았다. 그는 군적(軍籍)을 고치고, 적서차별 폐지, 공사(公私)의 천민을 양민으로 바꾸어 줄 것, 백성에게 일정한 크기의 토지를 주고, 노비를 해방하여 양인이 되도록 하고, 관리의 포악한 짓과 착취 금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사회개혁을 주장함으로써, 훗날 실학사상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Keum, 1994: 497-498). 이이는 리와 기의 절충점에 있으나 기에 비중을 두고 농민, 노비 등 민중들의 신분 향상과 사회개혁에 주안점을 두었다.

4.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서 기의 회생

조선 후기(17~19세기)는 조선 봉건사회가 급속히 쇠락해 가던 시기이다. 임진왜란의 7년 전란을 겪은 후, 조선은 급격한 인구 감소, 사회, 경제는 대대적으로 파괴되어 민중의 생활은 파멸해졌다. 하지만 조선 봉건통치자들은 봉건통치를 강화하고 정권을 다두고, 이권을 빼앗기 위해 당파싸움에 전념하며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탐욕을 채웠고,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치달았다. 18세기 중반 이후 광업과 수공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전하면서 봉건제도는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양반과 신혼 중인 계급이 늘어나고, 수많은 노예들이 투쟁하여 1801년 조선왕조는 마침내 공노비의 해방을 선언했고, 곧이어 사노비의 해방을 대대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회, 경제, 정치의 상황의 변화 속에서, 정주학의 고루하고 협소한 학풍에 분개하고 학풍의 대변환을 주장하면서 ‘세상에 쓸모 있는’ 학풍을 주장한 것이 ‘실학’이다. 그리고 정주학의 이론에서 배제되고 쫓겨났던 기 학자들이 기사회생하여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주학의 청담공론을 비판하고, 봉건사회의 부패를 폭로하고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비판의식에서 출발했다(Jeon, 2005: 115-143).

17세기 초 실학의 선구자인 이수광(1563~1627)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통치계급의 무능과 봉건사회의 모순, 전후 사회경제의 쇠락 상황을 목격하면서,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서구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접하고 진보사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정주학과 주희의 경전만을 숭상하는 유학자들의 공리공담, 사단칠정설이 사회에 큰 해로움을 끼치고 있음을 깨닫고, 절대 권위에 맞서서 실제와 결합한 실용적인 학문의 연구를 주창했다(Joo, Lee, & Joo, 1993: 334-335). 그는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인 기, 즉 ‘태극’으로 보았고, 그것이 세계만물을 창조한다고 생각했다. 이수광은 유교적 관념론의 “천도(天道)는 불변한다”는 물질세계 밖에 초자연적인 리를 비판했다. 그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으로 힘써 행해야 함을 강조했고 그가 말한 실천은 실학을 의미했다. 그는 실심(實心)으로 실정(實政)을 행하고 실공(實功)으로

실효(實效)를 얻는다고 하여, 이 ‘실’(實)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실사구시’를 근본으로 하는 실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중민사상(重民思想)이 봉건통치자의 부패와 무능을 폭로하고, 봉건통치자의 착취와 억압을 막고 국방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형원(1622~1673)도 봉건통치의 부패와 무능, 봉건사회의 각종 모순격화로 초래된 사회제도의 혼란상을 목격하고 개혁에 뜻을 세웠다(Chung, 2002: 67). 그는 정주학의 청담공론에 반대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정치, 경제정책 등을 근본으로 하는 실용을 위주로 한 학문을 주장하였다(Chung, 2018: 181). 유형원은 봉건사회의 사회적 폐단과 낙후상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반계수록에서 부국강병의 목적으로 교육, 문벌제도와 적서차별과 지방차별을 없앤 인재선발, 관리임명, 관직, 군사제도, 토지제도 개혁, 사회 최하층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개선하는 공노비 차별과 인권유린 금지, 태형, 종교적 미신활동 폐지 등 각 방면에서 민주평등의 체계적인 사회개혁안을 제기하였다(Joo, Lee, & Joo, 1993: 339, 342-343). 그의 사상은 후기 실학사상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민본, 민주사상은 도덕범주와 규범을 추상적으로 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과 사회정치개혁을 연계시켰다.

정제두(1649-1736)가 살던 당시는 당쟁이 격화되고, 서로 숙청과 보복이 난무하던 시절로 사회발전의 동력을 억누르고 붕괴시키기에 이르렀던 때이었다. 그는 정통 정주학으로부터 배척받는 양명학(Song, 2001: 12)을 공부한다는 것은 용기와 신념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Jeong, 2010: 144). 그는 양명학을 통해 지배적인 입장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민중의 입장에서 국가적 위기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시야를 갖게 되었다. 그는 관료 사대부와 정주학자들이 백성의 생사는 돌보지 않고 정권쟁탈과 공리공담하는 것을 통탄하면서 그들의 욕심을 비판했다. 정제두는 왕수인의 ‘심즉리’적 우주관을 계승하고 ‘마음과 리를 둘로 보는 것’을 비판하고 ‘마음은 곧 리다’라는 명제를 갖는다(Song, 2001: 13). 정주학의 리와 다른 점은 리를 지적인 허구로 보지 않고, ‘지행합일’과 ‘양지’를 주장했다. 그는 리와 기, 마음과 리, 성과 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고 마음 속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익(1681~1763)은 만물을 형성하는 시원은 기로 보고, 천지 사이에 가득찬 것 중에 기 아닌 것이 없다는 기일원론을 주장했다. 그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며, 자연과학 연구에 기초하여 실학사상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는 정주학의 경전과 주석 만을 맹목적으로 추송하는 청담공론에 반대하고, 왕수인의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에 기초하여, 행 곧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Joo, Lee, & Joo, 1993: 298-299).

이익은 역사, 지리, 경제, 군사, 문학, 천문, 수학, 의학, 동물학, 식물학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공부를 했지만, 통치자의 부패와 무능에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Park, 2009: 22-24). 그의 성호사설(星湖僿說)은 15세기 이래 조선의 자연과학 전통을 계승하고 서양 자연과학의 성과를 수용하

여 실학의 기틀을 세웠다. 이익은 과거제도가 문벌출신자만 등용하는 세습제라고 보고 ‘과천합 일제’를 주장하여, 양반계급의 폐폐가 국가적 빈곤의 주요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귀족들의 토지독점을 막고, 균전제 실시를 주장하여, 농민의 토지상실로 인한 파산을 막고, 빈부차별을 없애고, 무거운 세금부담을 줄이고, 탐관오리의 착취를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 이익은 노비제로 국방력이 쇠약해졌고, 노비제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노비세습법을 폐지하고, 양인으로 해방할 것을 주장하였다(Joo, Lee, & Joo, 1993: 355). 그는 균민(均民), 균권적(均權的) 평등사상을 주창하였다.

홍대용(1731-1783)은 일찍이 서경덕, 이이, 유형원, 이익 등의 진보사상을 접하고, 중국에서 서양선교사를 만나 서양과학기술의 장점을 목격하고 많은 책을 섭렵했다. 그는 태고적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기가 모여서 부단히 운동하는 과정에서 우주가 생겨났고, 기 → 물질 → 해 → 달 → 별 → 지구 → 나무 → 쇠로 생성되었다고 보았다(Joo, Lee, & Joo, 1993: 363). 이렇게 그는 우주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먼저 기가 있었고, 후에 리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홍대용은 조선의 정주학자들이 유교의 경전과 주석의 장구(章句) 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문독주의는 세상과 현실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학풍을 버리고, 지와 행 양쪽은 실로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다는 학문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로 관심을 돌려, 봉건적 허위도덕을 비판했다(Cho, 1983: 75). 그는 문벌세습제도에 반대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에 구애 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초등학교 의무제를 주장했다. 그리고 농번주의에 입각하여 전제를 개혁하여, 균전제를 주장하고, 세금의 중간착취를 방지하고자 했다(Joo, 2017: 160). 홍대용은 실심(實心), 실사(實事), 실효(實踐) 등을 주장하며, 실학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당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1737-1805년)은 서경덕, 이익의 기일원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세계의 시원을 티끌로 보았고,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고, 낡은 사물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단히 소멸하고 새로운 사물이 부단히 생겨난다고 보는 물질의 변증법적 세계관을 펼쳤다. 그는 지식과 이론을 생활에 실제적으로 응용하는 것을 중시하고, 역시 정주학의 청담공론을 반대하고, ‘지행겸비’(知行兼備)를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Joo, Lee & Joo, 1993: 379). 박지원은 실학자들 안에서도 수신제가를 기본으로 사회개혁의 근본방향을 삼았던 것과 달리,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의 사회개혁을 제기하였다(Song, 1967: 74-75). 그는 사회적 생산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양반, 문벌 및 과거제도의 폐단을 폭로하고, 신분 세습제에 반대했다(Oh, 2013: 145). 박지원은 그의 양반전, 허생전에서 부패한 무능한 위정자를 맹렬히 공격하는 동시에, 착취와 억압도 없고 빈부와 문벌의 차별도 없는 이상사회를 묘사하였다. 이것은 봉건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고픈 농민의 절박한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농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대변했다.

정약용(1762-1836)은 중국과 서양의 선진적인 사상과 기술을 연구하여 자연과학을 백성의 복

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정통 정주학을 비판하고, 천지만물의 탄생이 모두 기를 받아서 이루어져 천, 지, 수, 화의 네 요소의 변화와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Joo, Lee, & Joo, 1993: 393). 정약용은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무고하게 18년 간의 유배생활을 할 때, 사회의 현실생활을 보며, 봉건 지주의 수탈과 기만으로 극도로 빈곤해진 농민의 고통스런 현실과 봉건적 정치경제제도, 토지사유제의 불합리성을 예리하게 비판했다(Joo, Lee, & Joo, 1993: 398). 그의 목민심서, 흙흙신서, 경세유표 등에서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지학을 언급하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응용을 실천하는 등 실학사상 발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는 봉건적 신분등급제와 세습제, 지방차별을 폐지하고 현자를 등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국력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사대주의를 지키려는 정주학을 반대하고, 민족문화에 대한 자주적인 연구를 주장하고, 대외적으로 외국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유학생을 파견하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적 사회형태를 구상하였다(Kim, 2005: 78). 그의 민주, 민권정치적 사회개혁 사상은 한국 정치사상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군주제를 반대하고 민주제도로 백성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통치자를 세우는 것을 주장하였다(Kim, 2006: 332).

이처럼 조선에서 실학자들은 박해와 유배를 당하면서도, 정주학의 리의 지배이념을 비판하고, 기 사상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서양문물의 자연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전방위에 걸친 사회개혁을 제시하였다. 실학 사상가들은 봉건적 폐단과 쇄국정책을 반대하고, 부국강병을 위해, 외국의 선진적인 과학문화에 대한 학습과 상공업의 발전 및 대외무역의 강화를 주장했다.

IV. 결론: 기 사상가들과 민중신학자들의 민중실천론

지금까지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는 기 중심의 사상들의 주요 인물들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왔다. 연구자는 기 사상가들로부터 민중신학자들은 상황(context)에서 출발하는 것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본다. 양쪽의 사상가들은 사회의 구조적 억압된 현실에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민중들을 위해 대변하다가 권력으로부터 배척되고, 유배되고, 감옥에 가는 고초를 겪었으며, 민권, 민주를 위해 사회적 실천했다는 점이다. 서양기독교 신학은 5백여년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고 온갖 착취하는데 지배이념을 제공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서구신학은 큰 반성이 없었다. 한국에서도 기 사상가들은 리 중심의 충효 지배이념에 반기를 들고, 기가 우주와 자연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기선리후’ 또는 기일원론을 펼치며, 사회개혁을 외쳤다. 민중신학자들은 유럽과 북미의 백인중심의 신학에 대한 사대주의적 신학에서 탈피하고, 텍스트(성경)를 민중의 시각에서 정치적, 사회적 고통을 겪는 한국적 시각과 민중

의 시각으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성경에 대한 민중, 여성, 종교간 대화, 동양사상 등 다양한 해석의 물꼬를 열어 주었다. 기 사상가들도 리 추종자들의 중국에 대한 맹목적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경전들 해석에 대해 기 사상의 관점으로 보면서, 우주와 자연과 모든 사물이 변화하는 이치를 사회의 변화에 적용시켰다.

한국의 기 사상가는 양명학자, 실학자들을 통해 그 맥락을 이어갔으며, 지(학문)와 행(실천)을 통해 리에 녹아든 세계관, 도덕가치관의 지배이념을 타파하고, 미신, 과거제, 신분제, 토지제도 등의 불합리한 모순들을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려 했다. 이들의 윤리관은 도덕법주와 규범을 추상적으로 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개혁과 연계시키는 도덕 윤리관이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도 지와 행의 통일을 강조하며, 개인의 도덕윤리와 사회변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며, 민중신학의 실천 사상의 근거가 우리 사상에도 있었음을 보면서, 민중신학자들과 대화의 확장성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

References

- Kwon, J. K. (1995). Donghak's Understanding of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ject. *Studies in Religion*, 74, 69-95.
- Keum, J. T. (1981). Sirhaksasang of Bukhakpa(北學派): Scientism of Hong Dae Yong and Pragmatic Spirit of Park Ji Won. *Korean Studies Quarterly*, 4, 42-48.
- Keum, J. T. (1994). Thought of Yulgok and His Philosophical Trend: Yulgok's Thought and Silhak. *Journal of Yulgok-Studies*, 1, 485-498.
- Kim, K. S. (2005). A Study on the Chung Yak-Yong's Reformation Idea of Old Kingdom.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19, 61-93.
- Kim, S. I. (1992). "Sincerity(誠) and Han". Editing Committee of Memorial Chukche Sō Nam-dong (ed.). *Minjung Theology in the Transition Period*. Seoul: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 Kim, Y. D. (1970). Research of 'Ki'(氣) Monism Thought of Seo Kyoung Duck (1489-1546).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0, 53-93.
- Kim, Y. D. (1972). A Comparative Study of Between 'Ki'(氣) Monism Thought of Seo Kyoung Duck(徐敬德) and 'Ri'(理) Monism Thought of Lee Hwang(李滉).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5, 131-163.
- Kim, Y. H. (2011).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arim Party's Neo-Confucianism in the Early Chōsun Dynasty. *Korean Studies*, 19, 35-78.

- Kim, E. K. (2020). Is the Nicaea Creed a Ruling Ideology of Religious Power?: In the View of Minjung Theology and Religious Power. *Theological Thought*, 190, 183-211.
- Kim, C. H. (1998). The Direction and Meaning of the Political System Reform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Coseon Dynasty. *SA-CHONG*, 47, 74-108.
- Park, S. R. (2009). The Founder of the 'Gi-Centered Theory'(主氣論) in the Early Chosen Dynasty. *The Science & Technology*, 10, 26-27.
- Park, J. K. (1996). The Life of Yi Kyu-bo and the Character of his Writings. *Theses of Korean Studies*, 19, 33-50.
- Park, J. H. (2007). Toegye Yi Hwang's Theory on Four Beginnings and Seven Feelings: A New Interpretation on "Issuance of Li and Qi", *TOEGYE-HAK-LON-JIB*, 9, 343-376.
- Song, S. J. (2001). Yang-ming studies formalized in Korea and Jeong, Jae-doo. *Korean Yang-ming Studies*, 6, 5-33.
- Song, J. Y. (1967). The Economic Thought of Yeon-am, Pak Chi-won.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10, 31-52.
- Oh, Y. K. (2013). Study of Yeon'am Park Ji-weon's Social and Economic Reform Ideas. *Discourse* 201, 16, 137-164.
- Yoon, N. H. (1989). Gojoseon's National Structure - Gojoseon was a Feudal State and a Township State. *Monthly SaemTeo*, 20, 111-115.
- Lee, E. S. (1993).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on Need of Meeting Together and its Meaning. *Theological Thought*, 82(9), 220-250.
- Lee, J. S. (2019). Social Class Order at the End of Goryeo Period, and Jeong Do-jeon's joining of the Faction Aiming for a New Dynasty. *YŎKSA WA HYŎNSIL*, 112, 207-236.
- Lim, J. U. (2003). *A Study on Characters of Sabu(辭賦) in the Period of Korea Dynasty*. *Journal of Don-ak Language and Literature*, 40, 155-182.
- Jeon, K. W. (2005). Choi Chi-won and Political Reform in Late Silla. *SILLASAHAKPO*, 5, 119-147.
- Jeon, J. H. (2005). Political Realism of Silhak Thought and the Genealogy of it.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26, 115-143.
- Jeong, D. H. (1993). Nature and Human Being in perspective on Ki Thought of Hwadam Seo Kyoung Duck. *The Journal of Asian Philosophy in Korea*, 4, 183-204.
- D. Y. (2010) Jeong Je-doo, Cultivating the Field of Yangming Learning in the Era of Zhujihak. *History that Open Tomorrow*, 41, 142-165.
- Jeong, H. H. (2004). The Development of Sirhak and their Reform Theories in the Late Chosŏn

- Period. *The Dong Bang Hak Chi*, 124, 333-388.
- Cho, G. (1983). A Study of Hong Dae-yong's Political Thoughts. *Korean Classics Studies*, 14, 59-93.
- Cho, S. H. (2013). The Concept of “Shilhak” as a practical learning(實踐學):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Yulgok’s political reform theory.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May (33), 87-121.
- Joo, I. S. (2017). A Study on Damheon Hong Dae-young’s Thought of Social Reform. *Korean Association of National Thought*, 11(3), 135-172.
- Choi, I. B. (1996). The Life and Philosophical Thoughts of Maewoldang Si Seup Kim. *Quarterly Sasang*, 9, 161-200.
- 김은규 (2019). 종교권력으로 보는 구약신학. 서울: 동연. (Translated in English) Kim, E. K. (2019). *Religious Power in the Old Testament Theology*. Seoul: Dong Yeun Press.
- 김용복 (1981). 한국민중과 기독교. 서울: 형성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Y. B. (1981). *Korean Minjoong and Christianity*. Seoul: Hyeong Sung Sa.
- 김찬국 (1978). 예언과 정치. 서울: 정우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C. K. (1978). *Prophecy and Politics*. Seoul: Jung Woo Sa.
- 김찬국 (2021). 성서와 역사의식. 서울: 동연. (Translated in English) Kim, C. K. (2021). *The Bible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Seoul: Dong Yeun Press.
- 김흡영 (2000). 도의 신학. 병천: 다산글방. (Translated in English) Kim, H. Y. (2000). *Theology of Teo-Tao*. Byungchun: Dasangeulbang.
- 김희현 (2013). 서남동의 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Kim, H. H. (2013). *Philosophy of Namdong Suh*.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류영모 (2015). 다석 씨알 강의. 서울: 교양인. (Translated in English) Ryu, Y. M. (2015). *Daseok’s Lecture on Sial(씨알)*. Seoul: Kyoyangin.
- 문동환 (1985). 아리랑 고개의 교육 - 민중신학적 이해. 병천: 한국신학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Moon, D. H. (1985). *Education of Arirang Pass - Understanding of Approaching Minjung Theology*. Byungchun: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 서남동 (1983).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Translated in English) Suh, N. D. (1983). *A Study of Minjung Theology*. Seoul: Hangilsa.
- 성태용 (1995). 퇴계 이황의 사상 철학과 현실. 철학문학연구소에서 한국철학 특강 자료집, 144-160. (Translated in English) Sung, T. Y. (1995). Thought of Toegye Yi Hwang, Thought and Reality. *Proceedings of Korean Philosophy Special Lecture, Institute of Korean Philosophy and Culture*, 1995, 144-160.

- 안병무 (1987). 민중신학 이야기. 병천: 한국신학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Ahn, B. M. (1987). *A Story of Minjung Theology*. Byungchun: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 안병무 (1989). 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 한국신학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Ahn, B. M. (1989). *Christ in Minjung's Event*. Byungchun: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 유동식 (1992). 풍류도와 한국사상. 서울: 전망사. (Translated in English) Ryu, D. S. (1992). *Pung-Ryu Do and Thoughts of Korean*. Seoul: Jeonmangsa.
- 유동식 (2002). 한국문화와 풍류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Ryu, D. S. (2002). *Korean Culture and Pung-Ryu Do Theology*. Seoul: Handle Press.
- 윤성범 (1972). 한국적 신학. 성의 해석학. 서울: 서울문화사. (Translated in English) Yoon, S. B. (1972). *Toward a Korean Theology, Hermeneutics of Sincerity(誠)*. Seoul: Seoul Culture Press.
- 윤성범 (1976). 誠의 신학. 서울: 서울문화사. (Translated in English) Yoon, S. B. (1976). *Theology of Sincerity(誠)*. Seoul: Seoul Culture Press.
- 이성무 (2008). 퇴계 이황의 생애와 사상. 서울: 조선시대사학보. (Translated in English) Lee, S. M. (2008). *Life and Thoughts of Toegye Yi Hwang*. Seoul: Chosensidaesahakbo.
- 이은선 (2009). 다른 유교 다른 기독교. 서울: 모시는 사람들. (Translated in English) Lee, E. S. (2009). *Other Confucianism, Other Christianity*. Seoul: Moshineun Saramdle Press.
- 이정배 (1991). 성리학과 신학(토착화와 생명문화). 서울: 종로서적. (Translated in English) Lee, J. B. (1991). *Sung Confucianism and Theology(Indigenization and Life Culture)*. Seoul: Jongro Books.
- 정성철 (1989). 실학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서울: 한마당. (Translated in English) Jeong, S. C. (1989). Chung, S. C. (1989). *Philosophical Thoughts of Silhak and Socio-Poitical Perspective*. Seoul: Hanmadang.
- 주홍성, 이홍순, 주칠성 (1993). 한국 철학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Translated in English) Joo, H. S., Lee, H. S. & Joo, C. S. (1993). *History of Korean Philosophical Thought*. Seoul: Ye Moon Seowon.
- 함석헌 (2003).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한길사. (Translated in English) Ham, S. H. (2003). *Korean History from an Spiritual Perspective*. Seoul: Hangilsa.
- 허호익 (2020). 천지인신학. 서울: 동연. (Translated in English) Hur, H. I. (2020). *Thocosmoandric(天地人) Theology*. Seoul: Dong Yeun Press.